

## 「21세기 서울과 초고층 건축」 국제심포지엄

초고층 건축에 앞서  
기반시설 뒷받침돼야

지난 8월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21세기 수도 서울의 위상과 초고층 건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돼 최근들어 더욱 건립 열기를 더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층건축이 도시경제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도시의 상징적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하나의 도시로서의 자족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임창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초고층 건축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의 추진을 위해선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SOM사의 대표인 아드리안 스미스씨는 "에펠탑이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처럼 한국에도 초고층 상징건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초고층건물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서울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축은 일부 아시아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들이 최근들어 경쟁적으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얼마전 우리나라도 삼성과 롯데, 대우, 현대 등 대기업들이 1백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의 건립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건축사 등 전문업종 자격취득 정원 확대

전문자격사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해  
경쟁유도

정부는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시험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일정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 업종의 가격 및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의사, 변호 등 전문자격사 업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해당업종 자격증 소지자만이 병원이나 변호사사무소 등을 개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격소지자를 고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변호사협회 등 해당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보수기준도 관련법률을 개정,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제4회 이상건축 포럼 - "일본의 현대건축"

일본 중견건축가 도요 이토와의 대담 등  
마련

월간 이상건축이 창간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4회 이상건축 포럼」이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의 중견건축가인 도요 이토氏

가 초빙돼 '일본의 현대건축'을 주제로 작가 프리젠테이션과 대담 등을 진행한다. 대담자로는 이상해(성균관대), 우동주(동의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작가와 청중이 일문일답을 나누는 자리도 계획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청중들에게는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상공회의소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안토니 가우디 특별전시회 할인관람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요 이토는 동경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도요 이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중견건축가로 주요작품으로는 야쓰시로 시립박물관, 프랑크푸르트 오페라하우스 조명설계, 시모수와 박물관, 나가오카 시립 문화 및 예술홀, 타이사초 시립 문화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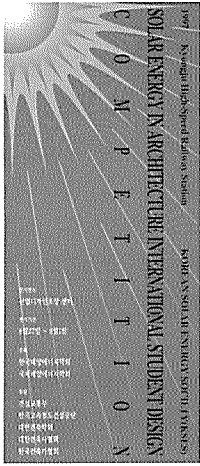
## 태양에너지학회

「국제대학생건축설계공모전」

### 수상자 발표

8월 27일부터  
서울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수상작 전시

한국태양에너지학회(회장 이경희)가 주최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경주고속철도역사' 국제대학생건축설계공모전 심사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존스 그렌외 2인(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공동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1등상은 서울대 건축학과 김종호, 조성익 씨의 공동작품이 수상했으며, 2등상 두 작품은 홍콩대학생들이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많은 건축학도들이 참가해 이들 응모작품중 특히 건축설계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자연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디자인 개념을 고속철도역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된 21개 작품이 상을 받게 됐다. 공모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길원) 측은 이번 건축설계 공모전이 기존의 공모전들과는 달리 건축 교육을 가장 큰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건축전공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축과 환경과의 공존의식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3천달러와 2천달러가 각각 수여되며 별도로 해외여행의 특전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디자인포장센터 전시실에서 일반에 전시되었으며 전시개막일 27일 오후 4시부터는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 韓·加 국제공동 스튜디오 심포지엄

경기대, 2학기 특강 및 세미나 일정발표

경기대 건축대학원과 캐나다 마니토바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 스튜디오 심포지엄이 오는 9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대 서울캠퍼스 지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Old & New'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Kaiserslautern 대학 Wolfgang Bohn 교수와 스위스 연방공대 Paolo Fusi 박사가 발표를 하며 이어 오후 5시부터는 김 원, 김준성, 민선주, 장림중 씨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한편 경기대는 올해 2학기 특강 및 세미나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 SAK · GSAK 특강 일정(주제/강사/일시 및 장소 순)
  - 데리다 : 형이상의 여백과 차이의 높이 / 양운덕 / 9월 4일 17:00 수원캠퍼스, 9월 5일 17:15 서울캠퍼스
  - 모더니즘과 Common Sence : 동시대 감성론 / 강성원(미술평론가) / 10월 9일 17:00 수원캠퍼스
  - 근작 / 최정화(가습시각개발연구소) / 10월 10일 17:15 서울캠퍼스, 10월 16일 17:00 수원캠퍼스
  - 동서양의 도시와 조경 / 박계주(슈투트가르트 대학) / 10월 23일 17:00 수원캠퍼스, 10월 31일 17:15 서울캠퍼스
  - 대중문화의 양면적 특성 / 이영미(문화평론가) / 11월 6일 17:00 수원캠퍼스
- SAK · GSAK 세미나 일정(주제/강사/일시 및 장소 순)
  - TV프로덕션의 신기루 / 윤두병(방송PD) / 9월 10일 09:30 서울캠퍼스
  - 광고기획과 아이디어 / 김남형(푸른나무 기획 대표) / 9월 24일 09:30 서울캠퍼스
  - 태평무의 미학 / 김미란(무형문화재 92호) / 10월 1일 09:30 서울캠퍼스

## 민간협 여름건축캠프 - '97 우리건축 만들기

건축인, 학생 등 120여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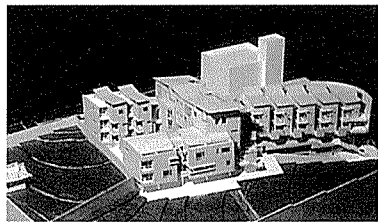
민족건축인협의회가 주최한 '97여름건축캠프가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전북 무주군 공정초등학교에서 열렸다. 복잡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며 「'97 우리건축 만들기」

란 화두아래 이 시대 우리건축을 돌아본 이번 캠프에는 건축인 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학생 등 12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전의 여러 행사들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던데 비해 이번 행사는 지방의 한적한 장소에서 열려 젊은 건축인들이 주축이 된 참가자들이 건강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얘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여름캠프는 건축설계, 건축이론, 한국건축, 한국의 풍수 등 각 장르별로 7개의 팀을 구성, 각 팀별로 각각의 주제하에 공개강의와 토론, 설계 및 워크숍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간접적이거나 많은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팀별 성과물 교류를 통한 활발한 입체적 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해주었다.

## 역토건축 한상범씨,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생」에 선정

각종 건축공모전 입상 경력의 신인



한상범씨의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 ( '96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작)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국내 주요 건축공모전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은 한상범씨가 「제6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의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일 최종 인터뷰 심사 결과 여행장학금 1만달러의 수혜자로 선발된 한상범씨는 현재 역토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이며 그동

안 실무를 통해 쌓아온 실력으로 95년과 96년 2년연속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 건축물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있는 신예건축인이다.

올해 장학제의 심사위원들 역시 스타일에 얽매임 없이 리듬감을 살리며 자유로움을 표현해 내고자 노력하는 그의 잠재된 재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공 「주거문화전시관」 개관

과거 · 현재 · 미래의 가옥과 생활상을 모형과 영상으로 구성

주택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주거문화전시관'이 성남 분당 신도시 대한주택공사별관내에 문을 열었다.

9월 1일 개관한 이 전시관은 연면적 2백 30여평 규모로 과거와 현재 · 미래 등 각각의 테마별로 당시의 생활상과 가옥의 변천과정 등을 모형과 영상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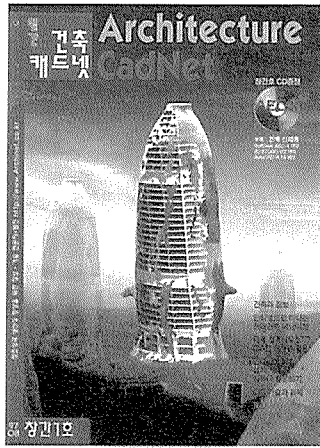
문의 : 0342-738-4911~4

### 건축 · CAD · 인터넷 전문지 「건축 CADNET」 창간

건축설계 · 건설 · 인테리어 · CAD · 인터넷 관련 정보 수록

건축과 CAD, 인터넷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 CADNET」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월간 「건축 CADNET」은 산업과 학계,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판매자 등을



연결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가치가 되겠다는 전제하에 이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교류,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 결과물에 대한 사진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기존 건축전문지와는 다르게 건축 디자인의 창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타입의 정보 · 기술 전문지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CAD 잡지들이 범용 전문지로서 건축 CAD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해 건축인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던데 비해 「건축 CADNET」은 실무분야의 CAD 사용자 및 CAD에 관심있는 많은 건축전공 학생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간 CADNET은 건축설계, 건설, 인테리어, CAD 그리고 인터넷의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웹진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권 7천원/1년 정기구독 7만원/2년 정기구독 13만원

문의 : 월간 건축 CADNET  
(02-599-3362)

### 건축신간 안내

#### Anyplace-장소의 논리

#### ◇ Anyplace-장소의 논리

이 책은 「AnyPlace-장소의 논리」란 주제로 지난 94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94 Any Conference를 번역 · 편집한 것이다. Any Conference는 매년 "Any~"를 화두로 세계 각 분야의 지성들이 모여 도시와 건축의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장으로 199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 95년엔 「Anywise-건축의 도전」을 주제로 서울에서도 회의를 개최했던 국제적 모임이다. 이 책에 소개된 몬트리올 회의는 계획된 열한번의 회의 중 네 번째에 해당된다.

이번에 책으로 소개된 '94 Any Conference에는 램 쿨하스, 김석철, 아라타 이소자키, 피터 갤리슨 등 유명 건축가는 물론 문학비평가와 문화인류학자 등 유명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구체적인 '장소'에서부터 추상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또, 개념적인 '장소'에서 가상의 '장소'에 이르는 갖가지 '장소'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특히 이책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장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건축적인 장소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김석철, 피터 아이젠만, 다니엘 리벤스킨드 외 25인 공동著 / 현대건축사, 건축도서출판공사(02-547-6156~7) 펴냄 / 2만2천원

